

“北 도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 문 열어둬”

한미정상 첫 회담, 긴밀 대북공조 재확인 오바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 표명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측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향후 수 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75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뒤 한미 양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법제계적 협력, 전작권 전환,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의

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둘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잘

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대북 화해정책을 펴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선언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가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두 정상은 또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결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효율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2015년의 전략적 전환과 관련, “전략적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 “한국은 전략적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오바마)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역없이 로즈가든서 ‘깜짝 산책’

朴 “버락·혜는 축복 뜻 이름부터 공유”

朴-오바마 만남 화기애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처음 만난 정상간의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애초 정상회담 30분, 오찬회담 45분 뒤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찬회담이 다소 길어지는데다 예정에도 없던 양 정상간 사적인 대화까지 이어지면서 공동 기자회견이 10여분 정도 늦춰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찬회담 직전 박 대통령에게 백악관 내 로즈가든 옆 복도를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두 정상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통역 없이 로즈가든을 따라 만들어진 복도를 10여분간 걸었다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상·오찬회담에서도 양 정상간 화기애애함이 묻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대선 압승을 축하한다”면서 “미국 행정부 내에 박 대통령을 칭찬(admire)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도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회담이 시작될 때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 중 버락이라는 이름이 스와일리

어로 ‘축복받은’(blessed)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제 이름인 바근혜의 ‘혜’ 자도 축복(blessing)이라는 뜻이어서 우리 두 사람이 이름부터가 상당히 공유하는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브이’(V) 사인을 하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박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두 손으로 박 대통령의 손을 감싸 안으며 악수를 했다. 기자회견장을 퇴장하면서는 박 대통령을 앞세우는 ‘매너’도 보여줬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 두발언에서 “오늘 밤 박 대통령이 미국 참전 용사, 한국을 방문한 참전 용사 가족들을 위해 만든다고 내일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며 “이는 사실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예”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한류에 매료당하고 있다”며 “내가 아가 박 대통령께 말했다는 아이들이 강남스타일을 저에게 가르쳐줬다”고 ‘강남스타일’을 화제로 올렸다. /연합뉴스

“지금은 김정은 만날 상황 아니다” 새 대북 유인책 없어... 공은 다시 北에

朴대통령, 美 CBS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공중파 TV인 CBS방송에 방영된 인터뷰 추가분에서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우리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그런 도발은 안 되고 대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선다면 우리는 지원하고 또 받아들여서 어떤 발전을

이루도록 도울 그런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핵도 보유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도 이루겠다는 병진노선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이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 당분간 돌파구 찾지 못할 듯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서는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나 유인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둘러싼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로 한 것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 이른바 ‘투트랙 어프로치’의 지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책임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모두 적극

적으로 대화나 대규모 대북지원 등 유화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담겨 있다. 결국 북한이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를 과격적인 ‘유화 제스처’는 없었던 셈이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대화는 없다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 이번에도 확고히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고 천명했다. /연합뉴스

19일 盧 전대통령 추모 문화제

노무현재단, 서울시청 광장서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앞두고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연다.

노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따온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모 문화제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의 ‘힐링토크’가 함께 진행된다.

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에 설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오마주’라는 주제로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해 노 전 대통령의 초대형 얼굴을 만드는 픽셀 아트 퍼포먼스도 펼쳐지며 가수 이승환, 조관우, 신해철씨 등의 공연도 열린다.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관양수 여자 등 가족과 주요 친노(친노무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재단은 4주기를 맞아 추모시집 ‘잊, 비틀거리는 날이면’(출판사 책이 있는 마을)도 펴냈다. 시집에는 도종환 안도현 시인 등 시인 47명과 공몽을 거쳐 선정된 일반시민 74명이 쓴 추모시가 담겼다.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금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로시설 대지1026㎡ 건물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서구 쌍촌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물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물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물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1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물70㎡ 감정가1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 매매

- ▷화순읍 연양리 자연녹지 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금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 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장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를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를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상, 창고, 전시장 등
매월동 서광주역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녹지 전 1,620㎡(493평) 매매가 200만원 조정 가능
투자 및 다용도용 토지
고흥군 동강면 동강동 부근 벌교-고흥 4차선 교차로 건너 권리지역 임야 6,600㎡ 매가 1억 5천 (교통, 접근성 편리, 경사도 없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료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중앙공인중개사
♣.병원건물 임대
☆.운암동 이파트 밀집지역 (금호,추경3단지,미라보,남양휴먼 우미 일신이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원 하실분 모십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지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1,333㎡(9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총장에게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 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